



깔짚(왕겨)사업으로 육계농가 소득증대 기여

새롭게 부상하는 안성육계업

안성지역이 육계사육의 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안성육계지부(지부장 김명호)가 결성된지 만 2년이 안 되었지만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확대를 통해 회원들간의 결속이 어느지역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안성지역에서 육계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약 40여 농가로 평균 사육수수가 5-6만수이다. 1년에 연간 최소 1천만수의 육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부에 소속된 회원수는 34명으로 지부결성 초기와 큰 변동이 없으며, 정기 회의를 할 때면 참석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지부활동에 모든 회원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다.

안성지역은 육계지부가 설치되기 전에는 유명 무실했을 정도로 활동이 거의 없었으며, 지자체로부터의 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육계농가와 계열사들과의 관계유지만을 이루며 육계업을 영위해 온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2005년 육계인들을 끌어 모으고 지부를 결성한 김명호 지부장이 회원들을 위한 희생적인 봉사와 새로운 사업 도전을 통해 육계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이다.

왕겨 구입 어려움 해결

그 대표적인 사업이 깔짚사업이다. 김지부장은 앞으로 벼의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도정



▲ 김명호 지부장

을 하지 않는 한 겨울에는 깔짚으로 쓰이는 왕겨를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점점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생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왕겨가 부족하다보니 연속사용을 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질병 등 환경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아진다는 사실에 항상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왕겨는 5톤차량(왕겨 무게 : 2.8~3톤) 기준으로 35만원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며,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지역에서는 4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성지역은 자체 구입한 차량을 이용해 일반 유통되는 왕겨보다 많은 양(3.3톤/5톤차량)을 조합원(안성육계영농조합법인)들에게는 1대당 15만원, 비조합원에게는 20만원씩 공급하고 있어 농가 소득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성지역의 육계농가는 조합에 출자만 할 경우 누구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참여농가는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출자를 통한 안성육계조합 설립

따라서 농가 스스로 출자를 통해 왕겨창고를 확보하고 종합미곡처리장(RPC)과의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깔짚을 공급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안성육계영농조합법인(조합장 김명호) 발기인 대회를 갖고 6월 회원 16명이 참여하여 정식적으로 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조합원들은 1만수당 100만원씩을 출자하여 1억2천만원을 모았으며, 육계인들의 뜻을 알아준 안성시청(시장 이동희)에서 2억5천만원을 지원해주었다. 김 지부장은 M계열사에서 나머지 차입금을 빌려 총 5억원을 마련하여 안성육계영농조합법인명으로



▲안성지부(안성육계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왕겨 창고에 왕겨가 입고를 기다리고 있다.



▲저장을 위해 왕겨를 기다리고 있는 330평짜리 창고 내부모습

780평의 대지를 사들여 건평 349평의 창고와 사무실을 건립하였으며, 왕겨 운반 차량(5톤)을 구입하면서 농가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지부 사무실도 지난 1월 창고가 들어선 보개면 적가리로 옮기고 활동적인 지부를 이끌어가고 있다. 지부를 방문한 지난 1월 30일, 사무실에서는 회원들 명단 옆에 입추예정일과 왕겨공급일이 기록되어 있고 최대 관심사인 왕겨수급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방문 당시에는 비수기 철이라 창고에 깔짚이 쌓여져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 왕겨가 많이 생산되는 시기에 창고에 충분한 양을 저장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물론 판매사업까지 구상을 하고 있다.



▲ 회원들은 언제든지 사무실을 찾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보개면 적가리 사무실 앞에서).

안성지부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왕겨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 회원 농가들에게 싼 가격에 공급해 주고 있는데 땅에서 난 것을 땅으로 돌려주는 이 사업이 바로 순환농업이라고 김지부장은 강조하였다. 이천과 여주지역 등에도 안성의 왕겨알선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차례 다녀가는 등 부러움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 수익증대 기여

직접 왕겨 알선사업을 하면서 안성지역의 육계인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 회원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다보니 회원들의 높은 참여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회원들은 원하는 날짜에 싼가격의 신선한 왕겨를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작은 농장에도 새롭게 개조되어 설치된 깔짚운반차량 호스를 이용해 쉽게 왕겨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침 왕겨 공급을 하는 농장이 있어 직접 농장

을 찾아보았다. 4만수규모를 경영하고 있는 농장주인 박용단 씨(안성읍계지부 회원)는 15년간 육계업을 해왔지만 요즘 같이 육계업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보람있다고 말하였다.

차량에서 뽑어져 나오는 왕겨를

직접 들고 시범을 보여주기도 한 박용단 씨는 한차에 150평 정도를 덮고도 남은 정도로 왕겨분량이 많으며, 작은 농장에는 일일이 밖에서 들고 들어가야 하는 불편을 덜면서 작업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설명하였다. 왕겨를 직접 지부로부터 공급받으면서 1년에 4회전을 한다고 보면 약 400만원(1회전에 약 100만원 절약)은 절약할 수 있어 생산비 절감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여 주었다. 더욱이 깔짚 연속사용을 하는 농장들이 없어지는 것이 안성지역의 추세라고 말하였다.

안성시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실

김 지부장은 안성시청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부의 활성화를 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지부를 결성하고 시로부터 처음 사업으로 감보로와 IB백신을 지원받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다고 회고하였다. 하지만 시에 필요성을 건의하고 시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에 적극 참여하면



▲계사에 왕겨를 공급하고 있는 모습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농장이라도 호스를 통해 쉽게 왕겨를 이송할 수 있다(5톤 1차를 내리는데 20분이 채 안 걸린다).

서 지원을 점차 늘려갈 수 있었다. 한 예로 매년 안성에서 열리는 바우덕이 축제에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여 계란과 닭고기 홍보요원으로 참여하여 축산물의 우수성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가 하면 시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 등 행사에 참여하여 안성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임원명단

지 부 장 : 김명호
 부지부장 : 최원술
 고 문 : 최학기
 감 사 : 김석산, 윤세영
 사무국장 : 최송숙

물론 이동희 시장과 김광림 축산과장의 축산에 대한 이해가 깊

었던 것이 육계업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무엇보다 주요했다. 또한 정기훈 시의회의원의 노력도 한 몫을 차지했는데, 정 의원은 과거 산란계를 경영한 경력이 있어 누구보다도 양계업에 대해 애착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안성시청은 AI가 발생하기 전인 2002년부터 현재까지 5년동안 매년 사업으로 차량출입용 방역시설을 8농가씩 설치해 주는 등 축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안성지부는 지난 2005 육계지부 설립 이후 감보로, IB백신 사업은 물론 시설보조 사업으로 환풍기, 온풍기, 가습기 등을 2회에 걸쳐 농가당 5대씩을 지원해 주는가 하면 생균제도 싼 가격으로 지원해주는 등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투자 이상의 이익을 위해서

안성지부는 금년 사업으로 차량 계근소 설치와 단열을 위해 사료빈에 단열재를 피복하는 사업을 전 농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윈치커텐 설치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갈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이 안성시의 적극적인 지원에서 이루어짐을 재차 강조하였다.

안성시 보개면에서 10만수(무창계사) 육계업을 영위하고 있는 김지부장은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다는 평소의 지론을 갖고 모든 일에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안성지부 사무실은 모든 회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언제나 육계산업 발전 및 농가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지부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